

미드의 자아 형성 이론에 기초한 인권 개념

—I와 me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곽희재
(서울대 철학과)

1. 서론

세계 인권 선언의 주요한 초안자 중 한 명인 자크 마리탱은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않는 선에서만 인권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말하며, 보편 인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인권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탐구를 배제시키려 한다.¹⁾ 또한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간의 권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반에서 논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인권의 실질성과 현실성이라는 즉각적 요청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인권 논의가 인권에 대한 설명적 요청은 배제한 채, 단지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만 행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을 그저 하늘에서 부여한 것, 당연한 것,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직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그것의 철학적인 근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의 뿌리나 근원에 관련된 논의는 세계 보편적 인권과 같은 여러 인권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자칫 그러한 논의가 현실에 존재하는 인권의 무기력함을 드러내어, 그것의 기반을 흔들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오히려 인권에 대한 건강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즉 인권의 발생 과정이나 그 근원에 대한 탐

1) Joshua cohen, ‘minimalism about human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2004, p. 193.

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주는 동시에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인권에 대한 요청 또한 더욱 확실히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연권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제시한 뒤, 자연권적인 인권 설명에 비해 진일보하였다고 여겨지며 자연권적 시각과는 대립되는 시각으로서 사회 철학자 미드의 사상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미드의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확장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2. 자연권

인간의 권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천부적 인권에 관한 논의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다. 그리고 천부 인권의 사상은 18세기 근대 전후의 시민혁명을 통해 공고하게 확립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독립 선언문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라고 표현하며, 프랑스 인권 선언문에서는 “이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라고 명시한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조물주에 의해 주어지거나 자연적이고 결코 소멸될 수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인권의 자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천부적 인권은 근대 사회의 등장에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천부 인권 사상은 일견 무책임해 보이며 아무런 설명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천부 인권 사상은 많은 인권적 논의에 바탕이 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사전적 의미의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로 자연권은 인간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특정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즉 인권을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주체가 인간 집단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 부여의 주체는 신이나 자연으로 가정된다. 신이나 자연이 인간에게 권리를 선천적으로 부여했다는 주장은 곧 우리가 인권의 근원을 후험적(後驗的)으로 탐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것을 당연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이란 실정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에 이미 선천적이고 불변적이며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상을 의미하는데, 자연적 권리인 자연권 또한 자연적 법칙의 하나란 것이다.

두 번째로 자연권 사상은 자유주의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이는 자연권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연적 권리 중 가장 주요한 권리로 자유를 들기 때문이다. 인권과 자유주의의 연관성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앞서 언급한 시민혁명이 있다. 시민혁명 이전에는 자연권, 즉 천부적 인권의 개념이 부재하였고 왕권만이 강력히 주장되었다. 하지만 시민혁명이 진행되며, 국왕의 지배라는 전통적 통치 형태와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인 왕권신수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자유주의적 자연권 사상이 등장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다.²⁾ 철학자 허버트 하트는 자연권이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에 있어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³⁾ 이와 같은 그의 자연권에 대한 정의는 자연권의 선형성과 자유와의 연관성을 명료히 정리한 것이다.

이렇듯 선천적 권리를 주장하는 자연권은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자연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권리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군주가 지배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왕권의 아래에 두었던 중세 사회의 틀을 근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

2) 김병곤, 「근대 자연권 이론의 기원과 재산권」,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이학사, 2011, p. 216.

3) 김연미, 「자연권: 자유와 평등의 그림자」,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法學論叢 Vol.31 No.2』, 2011, p. 220.

킨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누구나 천부적인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근대적 세계관이 등장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가치 체계의 근원을 형성하는데 자연권 사상이 분명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이 실정법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연권이 역사상에서 가지는 분명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철학적이며 학문적인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자연권의 문제는 그것의 정의에서부터 야기된다. 자연권은 인간의 권리를 선천적이며 선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곧 자연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거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으니 당연시하라는 자연권의 주장은 자연권이 논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설명에 있어 매우 무능력한 것이며 ‘믿음’의 영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믿음의 영역은 그 특성상 사실의 영역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맹목적인 성격을 가지기에 불안정하다. 즉 자연권은 그 내용상에서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자연권 그 자체는 보편적이고 타당하며 엄밀한 체계를 가지지 못한 학문인 것이다.

자연권과 관련된 많은 논의는 역사적 과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용하였지만, 자연권 자체가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권이 많은 학문적 이론, 현실적 체계들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자연권을 단지 직관으로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자연권에서 출발한 많은 논의들 또한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자연권이 하나의 강력한 가정으로서 주장된다면 자연권 사상에 기반을 두는 이론이나 가치, 더 나아가 법체계 또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권리를 자연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보충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연권은 결국 인간을 위한 사상이다. 인간으로부터 탄생하여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치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권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과 연결하여 볼 수 있다. 크게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시각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을 개별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사회적인 선상

에서 논하는 것이다. 대립하는 두 시각은 곧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다. 두 가지 상반된 시각 중 자연권은 인간을 개별자로 탐구하는 시각을 받아들인다. 개인들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속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점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에게 자연권이 있으니 사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자연권 사상은 인격, 즉 정신과 자아를 선천적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인격에 일종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위에서 언급한 논리상의 오류를 가진다.

인간의 선천성과 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과 자아와 같은 인격적 측면을 선천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와 더불어 인격에 부착된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사회를 기술한다. 인격-권리-사회라는 그들 주장의 논리적 순서에서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논리적 순서로서 정신과 자아와 같은 선천적 인격의 존재를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인격에 부여된 권리, 마지막으로 사회를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결국 인간의 본성도 기원도 아무 것도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다.⁴⁾

3. 미드의 사상과 인권

자연권 사상은 인간을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며 인간의 정신과 자아를 선천적인 것이라 전제하였다. 선천적 인격 속에 선천적인 권리가 동반된다는 시각을 가진 자연권 사상은, 결국 선천적 인격을 설명해야한다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인격에 동반된 인간의 권리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결코 흔들려선 안 될 근본적인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자연권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서 보완,

4) George Herbert Mead, 『정신·자아·사회』, 나은영 역, 한길사, 2010, p. 323.

수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연적 인간을 논할 때 일반적 사회 계약론에서는 ‘자연적’이라는 용어를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헤겔은 자연 상태에 있는 개별적 인간이라는 교의를 부정하고, 인간성이 영구불변하다는 생각은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미결정적인 존재였던 것이다.⁵⁾ 쉽게 말해 태어난 순간이라는 고정된 지점만이 자연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결정적인 인간이 완전성을 가지게 되는 인간 형성의 기간을 상정하고 그 형성 과정 자체를 ‘자연적’ 과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인권 또한 그러한 기반 아래서 새로이 논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헤겔의 사상과 유사한 미드의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미드의 기본적 이론을 살펴보고 그것에서 추출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1)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

인간과 관련된 미드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설명에 있어 형성적인 관점을 채택했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정신이나 자아를 선험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려 함으로서 미드는 인격을 이전 사조들에 비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도를 위해 미드는 인간의 사회성에 정초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자연권 등 이전 논의들에서 인간의 개인성에서 출발하여 후속적 논의를 이어갔다면 미드는 인간의 사회성에 강점을 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개인성과 개인에 내재한 성질에 관해서는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내용적 설명’이 필요한 반면, 미드와 같이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논의는 내용적 설명 보다는 ‘관계적 설명’이 요구된다. 즉 사회에 앞선 개인을 가정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증명과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사회성을 강조하는 이론에서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5) Francis Fukuyama,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1992, p. 225.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서 미드는 자연 상태의 개인을 논하지 않으며 자연 상태의 개인들 간의 제스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즉 원시적 개인과 또 다른 원시적 개인들 간에 나타나는 기본적 제스처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때 제스처란 자극과 반응의 순환적 연속을 의미한다. 미드는 또한 기본적 제스처가 발달하여 의미를 가지는 상징이 되고, 언어를 형성하며 결국에는 정신과 자아의 등장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과정을 거쳐 등장한 정신과 자아는 인격의 형성을 의미하고, 이때야 비로소 단순한 유기체와는 다른 완전한 의미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미드의 이론에서 인격은 정신과 자아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었다. 정신이란 인간이 언어를 동반하여 의미를 떠올리는 내적 대화를 통해 각종 자극을 분석하여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란 동일한 개인 안에 존재하는 일군의 조직화된 사회적 자아 'I'와 그에 반응하는 개인적 자아 'me'와의 상호 작용 자체를 의미한다. 인격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거쳐 사회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진정한 인간의 완성은 사회를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곧 개인과 인격이 결코 독자적인 존재로서 상상될 수 없으며 타자를 상정하고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간단히 언급한다면 미드는 개인과 타자의 사회적 과정 속에서 정신과 자아와 같은 인격의 등장을 언급하였다. 즉 미드의 사상에서는 인격-권리-사회 순의 자연권 사상의 논의를 반박하며, 사회-인격 순의 논의를 전제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의 인격의 탄생 과정에서 인간의 권리의 발생 과정이나 그 기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인권 개념에 적용 가능한 미드의 이론

미드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인권 개념은 자연권에 반대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이라는 의미에 대한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자연권을 확립하는 것이며 자연권의 발생 과정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미드의 사상에서 인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여야한다. 인격과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하기 위해 인격을 설명하기도 전에 인권을 제시한 기존의 시각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인권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미드의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개념의 근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미드가 강조한 과정적인 설명의 측면이다. 미드는 인격을 사회 속의 개인이 정신과 자아를 내재화함으로써 완성되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인격과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도 인격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다. 인간에 대한 과정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미드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인권에 대한 논의 또한 고정된 규정으로서만 받아들여야 해서는 안 된다. 즉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격의 등장이라는 요소와 더불어 인격을 가진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인권의 발생에 대한 이해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 인권이 기초적인 상호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자와의 ‘원초적 인정 체계’로서 등장한 결과물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과 타자와의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인권 개념의 새로운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성 자체에서 인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미드에게 있어서 권리 개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었다. 또한 개인의 권리 확인을 보장하는 것은 단지 타인들의 태도를 개인이 채용하는 과정일 뿐이다.⁶⁾ 인권의 기반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자아의 등장을 전후한 미드의 이론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이 단지 의미 있는 상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스처들의 상호작용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자아는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완전한 개체적 개인의 확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과정으로 등장한 자아를 가진 인격적 개인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의 독립성을 지닌 존재이다. 물론 사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일정 정도의 완전성을 지

6)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94.

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이 또 다른 완전하고 독립적인 타자들과 필수불가결한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권의 정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드의 발생학적 관점과 사회성에 대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면 새로이 인권을 “자신과 타자의 상호 과정 속에서 상호적으로 부여하고 인정하는 공통된 약속”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인권 개념에서는 “인간으로서”나 “당연시”, “타고난” 또는 “천부적”이라는 말로 인권이 포장되어 왔다면, 새로운 인권 개념에서는 발생적이며 사회적이고 상호과정 속에서 나타는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미드의 사상에 기초한 인권 해석

인권은 자아와 연관되어 새로이 규정될 수 있다. 자아는 인간이 인간이게 해주는 필수적 요소이다. 자아는 사물이나 행동에 둘러싸여 있는 단순한 유기체와는 완전히 구분되며, 생리적인 의미의 유기체가 아니다.⁷⁾ 자아에 관련된 미드의 이론은 로크가 언급한 man(사람)과 person(인격체)의 구별을 통해 명확해 질 수 있다. 로크는 정체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단순한 유기체인 man과 인격을 가진 person을 구별한다. 정체성 유지를 말함에 있어서도 로크는 man이 동물과 같은 여타 생명체의 정체성 유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해, person은 man과는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man과 person의 명확한 분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둘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짓는다면 미드는 자아의 발생을 설명함으로써 man에서 person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그 둘은 어느 정도 분명히 분리하려 한 것이다.

미드의 이론에서 자아의 완성을 통해 등장한 person, 즉 인격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구조이며, 사회적 경험 안에서 일어난다. 결과적으

7)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25.

로 자아가 하나의 개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사회적 경험과 동떨어져 저기 저만큼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⁸⁾ 이 말은 곧 자아가 탄생함과 동시에 인간의 완성이 결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완성은 계속적인 사회적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일 뿐이란 것이다. 인권 또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사회적 경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확인이 계속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하기에 인격과 인권의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의 자아의 확인을 통한 인격의 확립이 곧 인권의 확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역사에서 인격이나 인권이 어느 한 순간 탄생하여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때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인격과 인권이 역동하여 인간과 관계되어 내면화되어 온 것이다. 그것들이 선상에서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이어진 선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권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신과 자아와 같은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 연속적이며, 인격에 인권을 부여하는 과정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격의 형성 과정에서 인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드에게 인권은 일반화된 타인들이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의 첫 번째 근거로 자아의 사회성을 들 수 있다. 자아는 사회를 떠날 수 없으며, 사회의 압박 아래 있어야 자아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일반화된 사회적 자아 me의 측면이 개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한 우리 자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사회적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말한다.⁹⁾ 그런데 인간의 자연적 권리 또한 개인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편성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인권의 사회성을 me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의 필연적 사회성 자체가 인권

8)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31.

9)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54.

의 확립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드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인권의 두 번째 근거로 자아의 개인적 측면인 I를 들 수 있다. 미드는 me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I의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회 속에서 개인들은 모두 개성을 가진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그것을 I로서 표출하고 그것 또한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자아인 I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me에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I는 그 자신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행위이며, 조직화된 사회적 자극인 me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me에 대한 응답인 I는 실질적 경험으로서 나타나는데 그러한 응답적인 경험 속에는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즉 I는 자유라든지 자발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¹⁰⁾ 결국 I는 me에서 유발되어, me로 수렴된다. 하지만 자칫 무력해 보이는 개인적 자아인 I의 존재는 필연적 사회성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필연성을 뜻하는 것이다. 인권의 성립에 있어 거시적 시각에서의 보편적 요소와 더불어 미시적 시각에서의 개인적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I또한 me와 더불어 중요한 인권 형성의 요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의 i에게서 인권의 개인성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측면으로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me와 I의 합일이 인권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I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차별을 요구하고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려 한다. 미드의 입장에서는 타자와의 구분을 향한 욕구는 결국 사회적 자아 me로 수렴됨에도 그러한 욕구 자체는 연속적인 것이다. I에 me에 대한 대립은 결국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내밀한 개인적 자아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투쟁이 결론적으로 me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과정은 인권의 기초를 형성한다. I가 주장하는 개인의 우월성은 결국 개인의 권리가 타자의 권리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I의 투쟁과 me로의 수용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는 좀 더 조직화된

10)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69.

사회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한 개인의 개인적 자아 I의 영향으로 형성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자아 me가 공동체에 사는 전체 성원의 태도를 반영하게 될 경우이다.¹¹⁾ 미드는 me가 I에 비해 우세하지만, I 또한 me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I라는 개인성을 욕구하는 자아가 사회에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I가 me에 영향을 끼쳐 새로운 일반화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인정으로 드러난다. I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결코 me를 벗어날 수 없기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된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me의 사회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I의 욕구를 일정 수준 만족시켜주는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인권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사회와 개인 간의 인정이 인권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개인은 타자의 자유를 억누르는 수준에서까지 개인적 권리의 우월성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사회성에 의해 통제당하여 결국 일정 수준의 권리라는 누구나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보편적 인권의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사회에게서 요구하는 인정과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인정의 조화 곧 인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me와 I의 대립과 합일이라는 사회적 상호 작용 그 자체가 바로 개인의 자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권 또한 계속적이며 연속적인 선상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탄생은 결국 욕구와 책임의 조화라는 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의 자아 내에서 타자를 초월하려는 인정을 향한 욕구와 자아에 부여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책임의 균형점에서 성립된다. 앞서 말한 me의 측면이 사회로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는 억압적 색채가 짙은 측면이었다면 사회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서 시작되는 사회에 대한 자발적 책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란 반사적 지능을 통해 고차원적인 동물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다. 미드는 동물에게는 반사적 지능이 없기에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개

11)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81.

념이 없고 단지 앞에 놓인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인간의 제스처간의 약속, 즉 의미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회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또한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개인들은 모두 사회의 약속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한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I의 구체적인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 개인의 반응이 사회가 부여하는 책임을 수락하는 형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²⁾ 인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권리인 인권 또한 사회를 뛰어넘으려는 욕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 균형점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한다면 인권은 I와 개인의 우월성을 지향하는 욕망과 me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의 균형 지점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성과 개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인권의 정초를 찾을 수 있다.

미드의 사상에 기초한 인권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논의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인권에 대한 논의들을 포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한 사회가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했는가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즉 권리의 기반을 인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인간들 사이에서 찾음으로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나 인간 자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4) 의의와 한계

미드의 이론은 인권을 정당화하는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단순히 인권을 하늘에서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인권을 제시하여 우리가 인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게 해준다. 즉 인권에 대한 철학적이고 설명적인 기반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기존 자연권 사상에서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간 외부의 신이나 자연을 끌어들인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또한 미드에 기초한 인권 논의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권리를 내밀히 연결했다는 의의

12)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75.

가 있다. 인간의 사회성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적 측면을 인간의 권리의 기반에 둠으로서 두 가지 측면을 밀접하게 연관시켜 이론을 전개시킨 것이다.

하지만 미드의 발생 이론에서 인권의 기반을 찾는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먼저 미드의 인격 발생 과정에서 인권의 기반을 찾는 것은 오히려 인권의 근간을 약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me와 I의 상호작용이라는 자아의 형성은 매우 가변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다양한 맥락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인권 또한 가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me와 I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의 형성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이다. 매우 자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미드의 이론에서 인권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me와 I가 어떠한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me와 I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그 자체의 운용 원리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개인을 받아들이고, 개인이 사회를 받아들이는 상호적인 인정과정 그 자체에서 인권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본 보고서의 논의가 인권을 인간 군집 그 자체와는 동떨어진 결과물로서만 바라보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인간 자체와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본질적 연관이 없는 것인데 사회적 상호과정 속에서 단지 그것이 추상적 합의를 통해 주어졌다는 측면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이는 미드가 주장한 자아의 발생과 상호과정,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드에게서 me와 I의 상호작용, 즉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인권이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사회적 과정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기에 인권의 탄생도 인간의 본질 속에서 탄생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인권이 인간에 밀착되어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세 번째로 me와 I의 상호과정에서 I의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미드의 이론에서 시작되었지만 미드의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미드는 me와 I를 설명함에 있

어서 me라는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I의 수용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반해 본 논의에서는 I의 욕구를 me의 영향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I의 욕구를 강조하여 미드가 가진 사회와 개인에 대한 틀을 벗어났다고 비판할 수 있다. 물론 미드는 사회의 영향력을 그의 이론의 가장 큰 축으로서 언급하고 개인보다 사회를 우위에 두고 논의를 서술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드가 사회적 자아인 me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미드는 일반적인 인간과는 달리 명확한 인격을 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간에게는 I야말로 경험 속에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언급한다.¹³⁾ I의 측면이 me에 비해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을 미드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다른 이론으로 미드를 보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I의 욕구를 강조하는 것은 곧 개인적인 욕구를 사회적 상황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상황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인정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다. 홉스는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정 투쟁이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사물을 둘러싼 투쟁에 앞서 자신을 타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I의 인정을 향한 욕구가 보편적이며 중요하다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주장이다. 또한 헤겔은 자의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분화된 두 자의식이 지배와 예속이라는 인정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펼친다고 말한다. 이 역시 I의 욕구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홉스나 헤겔의 이론은 인격을 의미하는 미드의 자아 개념에 앞선 인간의 욕망을 논한다는 점에서 불충분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욕구의 측면에만 초점을 둔다면 미드의 사상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13) George Herbert Mead, 앞의 책, p. 295.

4. 미드의 이론에서 찾은 인권의 기반과 관련된 확대된 논의

1) 세계 보편 인권

미드의 이론에서 발견한 인권은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언급한 인권의 보편성도 특정 공동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신과 자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발생에 대한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특정한 공동체 내의 과정일 뿐이란 것이다. 이는 곧 공동체마다 인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마다의 인정을 향한 I의 욕구의 평균적 정도가 다르고, 특정 사회의 개인성에 대한 수용력이 다르므로 각 공동체는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인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간이 아닌 공동체 간의 보편적 인권을 논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 간에는 공통된 목표나 공통된 테두리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회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존재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상호과정 속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정당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공동체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과 일치한다. 그들은 인권에 대한 논의는 오직 특정 공동체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모든 곳에서 통용할 수 있는 세계 보편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단지 각각의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인권 개념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보편 인권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인 인권의 발생 과정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정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개념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은 충돌하는 두 측면의 조화를 통해서였다. 개인은 자신의 우월성을 향한 욕구를 사회라는 필연적 테두리에서 인정하는 한에서만 최대한으로 보장받으려했고, 사회 역시 개인과는

분리될 수 없기에 사회의 공통된 입장을 일정 수준 개인을 위해 수정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등장한다. 세계 보편 인권의 성립도 각 공동체 간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공동체 간의 교류가 개인들 간의 교류만큼이나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공동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즉 세계라는 공동체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동체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강압적인 형태로 드러나면 안 되며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 간의 인권 개념은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인권에 대한 상식적인 의미도 존재한다. 현대 사회의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계급에 대한 반대 등이 그러하다. 즉 많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세계적 의미의 인권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에 반하는 인권 개념을 가진 공동체를 포섭하는 일인데 그것이 세계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국가 공동체가 세계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요구된다. 세계적 수준의 인권 개념을 반영하여 공동체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특정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깨닫는 과정과, 세계 공동체가 특정 공동체의 인권 개념을 일정 정도 수용하는 과정의 병행이 세계 보편 인권의 성립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구체적 인권

미드의 사상에 기초한 인권 개념에서 구체적인 자유권과 평등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간섭과 억압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I의 측면을 me가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것에서 그 이해의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다. I는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지적으로 기억과 연관된다. 일반화된 사회적 자아인 me가 자극을 하면 I는 단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I가 me에 기반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

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자아의 요구를 부정할 수 있다. 즉 이러한 I와 me의 간극이 인간의 자유권을 설명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I의 욕구를 사회가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자유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평등권이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우월한 개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개인들의 개인적 자아인 I에 차별적 순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I가 특별하게 강한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선천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I는 평등하다는 것이다. 또한 I는 사회적 자아인 me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에 개인적 I가 평균적 me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평등권의 기반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의 관점에서 구체적 인권의 이해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정당화와 더불어 인권에 대한 확장적이고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미드의 사상에 기초한 인권 개념은 기존의 자연권 사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새로운 인권 개념은 인권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인격에 대한 해석을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발전시켜, 인권의 발생 과정 또한 설명한다. 이러한 시도는 인권과 인간, 더 나아가 철학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인간을 외부로부터 던져진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완전한 인간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고 세계를 바라보는 진화된 시각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미드의 이론에서 발견한 인권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확장된 논의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은 세상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성립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인간의 권리의 근거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에서 시작된 인권을 정당화하려는 철학적, 성찰적 탐구와 그 결과 등장한 새로운 인권 개념의 도입이라는 마무리는 우리의 세계를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병곤, 「근대 자연권 이론의 기원과 재산권」,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이학사.

김연미, 「자연권: 자유와 평등의 그림자」,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法學論叢 Vol.31 No.2』.

Joshua Cohen, 「minimalism about human right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2004.

Francis Fukuyama,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George Herbert Mead, 『정신 · 자아 · 사회』, 나은영 역, 한길사.

John Rawls, 『만민법』, 장동진 외 역, 아카넷.

Nigel Warburton,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 최희봉 역, 자작나무.